

2025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I 출장개요

출장목적

- 인도네시아·싱가포르 현지 한류열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 각국 관광협회를 방문하여 산천어·토마토 축제를 홍보하고, 인바운드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싱가포르의 노인복지 및 주거정책을 실시하여,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적 영감을 얻고자 함.

출장기간 : 2025. 9. 15.(월) ~ 9. 21.(일) ▷ 5박 7일

출장국가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싱가포르

출 장 자 : 10명(의원 7, 수행직원 3)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화천군의회	의 장	류희상	
	부의장	조웅희	
	의 원	노이업	
	의 원	김동완	
	의 원	김명진	
	의 원	이선희	
	의 원	조재규	
	의회사무과장	김성용	
	의정담당	박은영	
	주무관	유희봉	

주요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내용	비 고
1일차 9.15(월)	한국 (인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출 국	
2일차 9.16(화)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 한류문화전파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화천산천어, 토마토축제 홍보	
3일차 9.17(수)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관광협회	○ 관광 산업 민간 부문의 역할 벤치마킹 및 화천산천어, 토마토축제 홍보	
4일차 9.18(목)	자카르타	싱가포르	O`joy 노인 복지센터	○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 정신건강 관리 및 복지서비스 운영 사례를 조사	
5일차 9.19(금)	싱가포르		싱가포르 여행업협회	○ 관광 산업 민간 부문의 역할 벤치마킹 및 화천산천어, 토마토축제 홍보	
6일차 9.20(토)	싱가포르	한국 (인천)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공공복지주택	○ 세대결합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공공복지주택 비교견학	
7일차 9.21(일)	한국 (인천)			○ 입 국	

Ⅱ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심 의 내 용	적정	부적정
○ 출장 목적과 활동이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였는지 여부		
○ 보고서 충실도(사진, 면담내용 등)		
○ 활동성과 및 정책 환류 가능성 (의정에 반영 가능성 도출)		
○ 예산 지출이 승인된 계획과 동일하게 지출되었는지(승인 외 지출여부)		
심의결과		

○ 기타의견

-

Ⅲ

주요기관방문

1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 방문개요

- 일 시 : 2025. 9. 16.(화) 13:30
- 주 소 : Equity Tower 17th Fl. Jl.Jend.Sudirman, SCBD, Lot 9, Jakarta, 12190
- 장 소 :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회의실
- 안 내 : 김용운 원장 및 관계자 2명

☐ 방문목적

- 한류 문화의 인도네시아 전파 우수사례 분석
- 산천어·토마토 축제의 홍보방안 모색

□ 기관소개

-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2011년 자카르타에 설립되어 한국문화의 홍보와 양국 간 문화 교류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
- 누구나 쉽게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열린 체험 공간을 제공하며, 양국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임.

□ 주요 의제별 토의내용

○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의 핵심목표와 주요사업

-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원의 핵심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임.

첫번째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임. 문화는 단순히 즐길거리나 이벤트를 넘어서 한 나라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연 전시 교육 등을 통해 한국을 긍정적으로 알리고 있음.

두번째는 한국 문화예술 및 체육, 관광사업의 홍보임. 예술 공연부터 한식, 전통예술, 태권도, 한국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

세번째는 주재국과 쌍방향 문화 교류 실현임. 일방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문화와도 교류하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걸 목표로 함. 현지 예술인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한국문화원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한국 문화작품의 전시, 영화제, 한복 체험, 태권도 교실, 한식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일으키고 있음.

또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언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하여 현지 언론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언론인들이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한국을 경험하고 취재하는 초청 사업도 진행 중임.

○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의 위상과 현실과제

- (화천군의회)

대한민국 한류의 문화적 위상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어느 정도 실재하는지 의문이 듦.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화적 우월감에 젖어 한류의 실체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현지 시각에서 바라보는 객관적 현실을 설명해 주기 바람.

80~90년대 우리나라에서의 중국·일본 미디어 문화의 선풍적 인기와 비교하여, 대한민국 한류 문화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현지에서의 열기가 지속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기적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람.

- (한국문화원)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기대 이상임. 한국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 영화, 드라마, KPOP 등 미디어 문화를 넘어서 언어, 역사, 음식 등 생활 뿌리깊은 곳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다만, 현재로서는 한류 문화의 일방적 확산은 경계가 필요하다 판단됨. 한류 문화의 급속한 범람으로, 오히려 위기의식적 반한류 기류가 발생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문화적 이해와 교류가 바

탕이 되는 호혜적 분위기 조성이 한류 문화 진흥에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문화와의 교류적 측면을 부각하여 추진하고 있음.

○ 한국문화원의 문화교류 사업시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의 홍보 연계

- (화천군의회)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세계 4대 겨울축제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음. 지난 몇 년간 동남아 시장에 대한 마케팅 노력으로 올해 18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음.

인구 2억 8천만명 이상의 인도네시아는 인바운드 관광 시장으로서 최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우리군 역시 이슬람 문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문화원에서는 겨울축제의 미개척 지대인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우리 산천어축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림.

추후, 우리 화천군은 산천어축제 및 토마토축제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화천문화원과의 실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음.

-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원에서는 이미 진주 실크등을 콘텐츠로 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음. 대한민국 지자체의 우수한 문화컨텐츠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다만, 인도네시아 취항 항공사의 경우 저가 항공사가 없는 점과 이슬람

문화권의 할랄음식 문화, 연계 관광 상품의 부재, 비용의 경제성 등이 국내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됨.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시민들을 축제로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메리트 개발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 국외관광 에이전시 상품에 산천어축제가 없는 점을 볼 때, 관광상품으로서의 상품성에 개발에 힘써 주기 바람.

☐ 방문사진



2 인도네시아 관광협회(ASITA)



☐ 방문개요

- 일 시 : 2025. 9. 17.(수) 11:00
- 주 소 : Golden Plaza Fatmawati, Jl. RS. Fatmawati Raya No.15 Blok A30, RT.2/RW.2, South Gandaria, Jakarta, South Jakarta City, Jakarta 12420
- 장 소 : 인도네시아 관광협회(ASITA)
- 안 내 : 인도네시아 관광협회장(MR.로키) 외 관계자 2명

☐ 기관소개

-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언 및 제도의 개선
- 인도네시아 국내외 관광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회원사 지원

□ 방문목적

- 산천어축제 · 토마토축제 홍보 및 인도네시아 관광협회 회원사(에이전시) 관광상품화 방안 논의

□ 주요 의제별 토의내용

- 인도네시아의 해외관광 트렌드와 한국 시장에 대한 수요

- (화천군의회)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인구와 성장력을 가진 국가로서, 해외여행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인도네시아의 해외관광 트렌드와 한국 시장에 대한 수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인도네시아 관광협회)

인도네시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임. 주요한 이유로는 저렴한 비용과 짧은 이동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국 시장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늘어가는 실정임. 특히, K-POP,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서울, 부산 등 한국의 주요 도시를 순례하는 형태의 테마형 관광이 인기를 받고 있음. 인도네시아인의 해외여행 비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겨울축제가 전무한 인도네시아는 산천어축제의 마케팅 타겟으로 매우 적합한 대상이라 생각됨.

○ 산천어축제 · 토마토축제의 인도네시아 관광상품화 방안

- (화천군의회)

앞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마케팅 시장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 화천군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특히, 기존 동남아 지역의 주요 마케팅 대상 국가로서, 인도네시아가 없었으므로 이번 방문 기회를 통해, 산천어축제와 토마토축제를 적극 홍보하고자 함.

또한, 인도네시아 관광협회는 수천개의 회원사(에이전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광시장 개척에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우리 산천어 · 토마토 축제가 인도네시아 에이전트들의 관광 패키지 상품화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람.

- (인도네시아 관광협회)

인도네시아 관광협회는 8천개의 회원사(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관광에 대한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 마케팅 업무를 지속 추진 중에 있음. 최근 한국 관광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 부산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패키지 상품은 이미 다수 존재함.

산천어 · 토마토 축제의 인도네시아 현지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관광협회 관계자들의 사전 팸투어가 필요하다 판단됨. 비용의 경제성, 연계 관광자원 등 패키지 상품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또한, 현지 입장에서는, 한국 관광에 있어 비용적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운 만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 (화천군의회)

우리 화천군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동남아 시장에 대한 개척을 진행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동남아 현지 마케팅 및 언론사 초청 팸투어 등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화천군의회 의견에 대한 인도네시아 관광협회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산천어·토마토 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해 적극 고민하여 행정과 협의하겠음.

인도네시아 인바운드 마케팅에 있어, 현지 관광 에이전시의 입장과 현실적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함.
귀국 후 행정과의 협의를 통하여 실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음.

☐ 방문사진



③ O'joy 노인복지센터



☐ 방문개요

- 일 시 : 2025. 9. 18.(목) 15:00
- 주 소 : 5 Upper Boon Keng Rd, #02-10, Singapore 380005
- 장 소 : o' joy 노인복지센터
- 안 내 : o' joy 노인복지센터장(추진키아) 외 관계자 1명

☐ 기관소개

- o' joy 노인복지센터는 싱가포르의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사회적 취약 계층인 노인과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삶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음.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상담 및 사례관리 통한 삶의 질 개선이며, 매년 800명 이상의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케어하고 있음.

□ 방문목적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자체의 수준의 노인 정책 발굴
- 싱가포르 노인복지 및 주거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 주요 의제별 토의내용

○ 싱가포르 고령화 문제의 현황 및 노인복지 정책의 주안점

- (o' joy 노인복지센터)

2030년,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비용과 파생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에 싱가포르는 건강, 주거, 연금, 교육 4개 축을 기본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실현하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관련하여, 인구를 나이별 3개의 단위로 분류하여 정부의 지원을 차등화시키고 있음. 가령 1세대 노인에게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비용의 전액 지원을, 2세대 노인에게는 건강연금에 대한 부분적 지원을, 3세대 노인에게는 보너스 지급을 시행하는 내용임.

싱가포르는 공공복지주택(HDB)의 공급을 통하여, 전 인구의 80%가량이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노후 주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는 바가 큼.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와 전 지역의 도시화로 치매 위험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 이후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싱가포르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이에 싱가포르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정신질환의 경중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기관 및 정부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접근하고 있음.

우리 o' joy 노인복지센터가 하는 역할은 1~3단계 정도의 질환자를 케어하는 것으로, 지속적 심리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노인 치매 등 정신 질환 관리에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함.

- (화천군의회)

지방정부로서 우리 화천군도 노인의 복지와 주거환경, 정신건강의 관리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o' joy 노인복지센터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영역은 우리 화천군에서도 치매안심센터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업의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음.

다만, 싱가포르의 공공복지주택(HDB)의 보급률과 노인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고무적으로, 최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가미할 요소가 많다고 판단됨.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주택의 보편적 공급 방안을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방문사진



4 싱가포르 여행업협회(NATAS)



□ 방문개요

- 일 시 : 2025. 9. 19.(금) 10:00
- 주 소 : 120 Lower Delta Rd, #03-16, Singapore 169208
- 장 소 : 싱가포르 여행업협회(NATAS)
- 안 내 : 싱가포르 여행업협회 아웃바운드담당자(미스 메리쿱) 외 2인

□ 기관소개

- 싱가포르 여행사를 대표하고, 여행산업 발전 및 표준화를 위해 노력
- 국제적 규모의 여행 박람회 개최로 싱가포르 여행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

□ 방문목적

- 산천어축제·토마토축제 홍보 및 싱가포르 여행사 관광상품화 방안 논의

□ 주요 의제별 토의내용

○ 산천어축제 · 토마토축제의 싱가포르 인바운드 마케팅 방안 논의

- (화천군의회)

싱가포르 해외여행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산천어축제는 세계 4대 겨울축제로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표축제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명성에도 아직까지 싱가포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싱가포르 인바운드 시장 공략을 위한 필요적 요소는 무엇인지 제안해 주기 바람.

- (싱가포르 여행업협회)

이미 한국에 대한 여행상품으로 대도시 위주의 투어 프로그램은 다수 존재함. 반면 화천군의회에서 홍보하고 있는 산천어 · 토마토 축제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축제의 시기 및 프로그램, 연계 관광 요소들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해 보임.

인천공항에서의 화천과의 거리,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숙박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함. 최소 1박2일에서 2박3일의 여정을 패키지화 할 수 있는 연계 관광 요소도 존재하는지 알고 싶음. 또한 현지 에이전시의 팸투어 등 여행 상품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화천군의회)

산천어 · 토마토 축제의 해외 홍보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SNS를 활용한 다국어 홍보 및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싱가포르 여행사협회의 홍보 협조를 위하여 추후 충분한 축제 정보 컨텐츠 제공을 약속하겠음.

산천어축제의 특성상 숙박의 소요가 크지 않으나, 숙소의 공급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음. 다만, 30분 거리의 인접 도시에 숙박을 위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에 해외 방문객 유치에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올해도 18만명 이상의 동남아 방문객이 순조롭게 축제를 즐기고며 다녀갔음.

연계 관광상품으로는 백암산 케이블카를 들 수 있음. 현존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대치가 불과 몇키로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은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큰 안보적 영감과 호기심을 자극하리라 생각됨.

우리 의회는 추후 귀국 후 행정과의 협의를 통하여, 싱가포르에 대한 적극적인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 앞서 언급한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싱가포르 여행업협회가 소속 에이전시들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싱가포르 여행업협회)

우리 싱가포르 여행업협회 역시 아직 내년 축제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화천군의회에 제안을 받아들여 싱가포르 소속 에이전시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음.

□ 방문사진



IV

싱가포르 노인복지 및 주거정책 견학

1 캄뵙 애드머럴티(복합 커뮤니티)

☐ 방문개요

○ 일 시 : 2025. 9. 20.(토) 10:00

○ 장 소 : 676 Woodlands Drive 71, Singapore 730676

☐ 방문목적

○ ‘캄뵙 애드머럴티’는 싱가포르 최초의 통합형 노인주택단지로서, 그 혁신적인 디자인과 복지기능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됨. 지방정부 수준에서 채택할 정책적 요소를 모색·발굴하고자 함.

☐ 특 징

○ 단지 내, 병원·커뮤니티 센터·식당·공원·보육시설을 모두 갖춘 통합형 노인복지 주거시설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싱가포르의 대표적 정책 사례

□ 현장사진



□ 시사점

- ‘갬뽕 애드머럴티’ 그 기능적 형태가 한국의 ‘실버타운’과 유사한 통합형 노인주거 단지로서, 주거단지 내 병원·커뮤니티 센터·식당·공원·보육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음.
-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를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충분히 고무적이라 생각됨,
-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갬뽕 애드머럴티’의 통합 복지적 요소를 가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특히, 주거를 공공복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관리하는 싱가포르의 정책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적극 벤치마킹하여,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주거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됨.

②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및 공공주택(URA/HDB)



☐ 방문개요

- 일 시 : 2025. 9. 20.(토) 14:00
- 장 소 : 45 Maxwell Rd, 싱가포르 069118

☐ 방문목적

- 싱가포르의 협소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하게 도시계획하는 도시개발청을 견학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및 주거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설계하고자 함.

☐ 특 징

- 협소한 국토의 효율적 도시화를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역사적 노력을 체감할 수 있으며, 특히 현지 주민들의 실생활 주거공간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장사진



□ 시사점

-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철저한 주거계획을 통하여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들을 조절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효율적 공급을 통하여,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음.
-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사회 진입 및 인구감소에 따라,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로, 주거의 형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노동인구의 감소·농촌인구의 절벽 현상에 따라, 다문화 가구의 증가와 그로 파생되는 사회적 갈등이 대두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의 철저한 미래계획적 도시계획 및 주거정책은 새로운 변화기를 맞이하는 우리 화천군의 주거공급 정책에 큰 영감을 제공함.
-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 주거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류희상 의장

○ 지방의회의 역할과 국제교류의 의미

이번 인도네시아·싱가포르 국외연수는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지방의회의 국제적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문화원과 관광협회 방문을 통해서도 우리 지역 문화와 축제를 해외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마케팅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O' Joy 복지센터와 도시재개발청 견학을 통해 복지와 주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모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사회는 공공과 민간, 주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방의회가 단순히 감시와 심의의 기관을 넘어, 지역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을 이끄는 정책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화천산천어축제와 화천토마토축제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현지에서 홍보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느낀 ‘한류’의 영향력은 글로벌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게 했고, 작은 지역이라도 진정성 있는 정책과 문화를 갖춘다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 시야를 세계로 확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한 의정’ 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변화임을 깊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 조용희 부의장

○ 주거와 복지의 조화를 본 싱가포르 현장

싱가포르의 주거정책 중 O' Joy 노인복지센터는 매우 체계적이었고, 동시에 가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쉼터였습니다.

감뽕 애드머럴티 단지의 건물은 단순히 아파트가 아니라, 하루의 삶이 완성되는 공간이었다. 건물 안에 병원, 식당, 커뮤니티센터, 보육시설이 모두 있어 ‘함께 사는 마을’의 개념이 잘 구현되어 있었다. 도시재개발청 관계자가 “공공주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공동체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우리군의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집단주거지(도심지) 내에 신축하여 임대 거주자와 가족 그리고 일반인도 건물 내의 복합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와 공동체의 개념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O' Joy 노인복지센터는 주거복지와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주거-돌봄-치유’가 순환되는 복지체계를 실현하고 있었다.

특히, 노인복지센터 내에 병원이 있다는 것은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서 우리군에서도 건물내에 병원을 유치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다.

그곳에서 본 노인들의 미소는 복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었다. 그들의 행복은 거창한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와 존중의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느꼈다.

이번 견학을 통해 ‘건물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했다.

□ 노이업 의원

○ 동남아 시장에서 본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관광협회 방문을 통해 우리군 축제가 기존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 좀더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관광협회 관계자가 “한국의 겨울축제는 인도네시아에 없는 경험이라 더 특별하다”고 말했을 때, 산천어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가능성을 실감했다.

한국문화원에서도 한류의 영향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여행업협회에서는 실용적인 조언을 들었다. 그들은 자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짧은 일정과 체험 중심의 여행문화를 강조했다.

이 말을 들으며 우리 축제도 숙박, 교통, 식사 등 여행자의 시각에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관광은 단순히 방문객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문화와 감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화천의 축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는 기회였다.

□ 김동완 의원

○ 지역축제,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의 장으로

이번 국외출장 연수를 통해 우리군의 축제가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니라,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인도네시아 관광협회와 싱가포르 여행업협회 관계자들은 한국의 축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들렸다.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에서는 한류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언어가 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화천의 축제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의 정서와 공동체 정신을 전하는 문화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세계와의 교류는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가진 진심을 따뜻하게 전할 때 가능한 일임을 느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여행사, 문화기관 간 삼자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축제를 관광상품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외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우리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 김명진 의원

○ 문화·복지·도시정책이 만나는 새로운 길

이번 연수의 여러 기관을 돌아보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문화, 복지, 도시정책이 서로 다른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문화원에서는 문화가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힘이라는 말을 들었고, O' Joy와 깜뽕 애드머럴티에서는 복지와 주거가 하나의 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도시재개발청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도시계획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도화되어 있었다. 결국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은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분야의 조화로운 연결 속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축제, 주거, 복지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서로의 영역을 잇는 통합형 정책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연수는 ‘사람 중심의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느끼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 이선희 의원

○ 고령사회 복지정책, ‘삶의 질’을 다시 생각하다.

이번에 방문한 싱가포르의 복지현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O' Joy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난 직원들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단순한 치료가 아닌 ‘삶의 돌봄’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으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들은 답변은 더욱 인상 깊었다.

그들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65세 이상 노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것이다. 이 설명을 들으며,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군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이제는 노인복지를 소득기준 중심의 제한적 정책이 아니라 모든 노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 역시 노년의 삶을 걱정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복지는 행정이 아닌 ‘사람의 일’임을 그들의 모습에서 배웠다. 다음으로 방문했던 감뽕 애드머럴티 단지는 하나의 작은 도시를 연상하게 했다. 노인주택, 병원, 보육시설, 공원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 속에서 세대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곳을 거닐며, ‘노년의 삶이 고립이 아니라 연결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감동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개발청을 견학했을 때 주거정책이 곧 복지정책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남았다.

우리군에서 향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복지서비스·건강관리·세대통합기능을 결합한 주거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이번 연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통합형 복지모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 조재규 의원

○ 지역의 미래를 다시 묻다, ‘문화·관광·복지의 통합 비전’

화천은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공장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주요 생업은 농업과 군부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이 주를 이루어 왔다. 대체로 그럭저럭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구조가 유지되어 왔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27사단 해체와 청년층 이탈의 가속화로 인해 화천은 3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화천의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 살리기에 수년째 몰두하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산천어 축제와 토마토 축제 등 전국적으로 호평받는 축제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인구 소멸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에 더욱 다양한 문화 축제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화천의 겨울 대표 축제인 산천어 축제와 여름 대표 축제인 토마토 축제는 아직까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거대한 빙판과 설경을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산천어 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화천군의회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로 해외 공무 출장을 추진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 속에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를 배우는 데 열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국의 관광협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화천의 축제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또한 관광협회 측에서는 화천의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 중심의 한국 관광 콘텐츠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다만, 그들이 지적한 “정보의 부족”과 “맞춤형 콘텐츠의 부재”는 깊이 새겨야 할 과제였다. 한류의 에너지를 활용해 우리 축제를 현지 문화에 맞게 재해석한다면 훨씬 더 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방문과 교류를 통해 지역 축제의 국제화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마련했다는

점은 큰 성과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방문도 중요한 일정이었다. 한국문화원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열정을 다해 한국을 공부하고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문화원 로비에 설치된 전주 한지축제 홍보 전시관의 모습이었다. 전주 또한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화천보다 한발 앞서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화천 지역 축제의 국제화 실행 능력이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화천군은 축제의 국제화·세계화를 위해 더욱 폭넓은 도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고령화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니, 한국의 고령화 정책이 미흡한 여러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고령자 주거지역을 도심에 배치하고,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계획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 인종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적·경제적 공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자칫 슬럼화될 수 있는 고령자 타운을 활력 있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한국도 고령자 정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화천은 고령자 아파트를 상권 외곽에 배치하여, 도심과 고령자의 삶이 단절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고령자 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고령자들 스스로 세대 분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을 낳을 우려가 있다. 고령자가 건강하려면 도시가 건강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적 도시 디자인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